

언어학 이론과 한국어 의미 통사 구조의 습득 - 한국아동의 대용사 습득과 보편 문법에 관한 연구 -

이귀옥

경성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아동의 대용사 습득 과정을 조사하여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 언어이론의(Chomsky, 1957, 1965, 1981, 1986, 1988) '언어 초기 상태(Initial State)' 가설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무표적 구조를 규명하고 보편 문법의 문법적 매개 변항을 이루는 실험적 증거를 통하여 아동 언어 습득 과정에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언어 상태를 밝히는데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대용사의 기본적 원리를 검토하거나 상이한 언어 구조간의 대용사에 대한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매개변항화를 규명하는 비교 연구가 시도되었지만(S. Chang, 1977, S.J. Chang, 1978, Cho, 1985, Kim, 1976, C. Lee, 1973, 1988, H.B. Lee, 1983, I.H. Lee, 1978, S. Park, 1986, D.W. Yang, 1982, O'Grady, 1987) 한국어 대용사 습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그나마 연구의 결과가 서로 달라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O'Grady, Suzuki-wei & Cho, 1986, Lust & Lee, 1989).

좌분지 언어인 한국어의 공대용사습득에서 나타난 '전진 방향' 효과와 일본어, 스리랑카어등의 다른 좌분지 언어의 대용사 연구 결과와의 차이점을 규명하여 한국어의 주제 표시어나 '자기' 대용사에 대한 문법적인 위치를 밝히며 결속 이론적 관점에서 '자기' 대용사를 조사 연구하며, 언어학적 심리학적 면에 관련된 문제들, 즉 한국아동의 대용사 습득과정에서의 '구조-의존적(structure-dependence)' 성향의 여부와 언어 형상과 선형화에 대한 민감성, 한국어의 구조와 언어 습득 요인에 대한

한국 아동의 최초의 언어 습득 가설이 이러한 구조와 상호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 연구할 것이다.

연구방법으로서는 2분지(좌, 우)×2 대용사 유형(공대용사, 어휘대용사)×2 대용사 방향(전, 후)로 설계된 요인 실험을 이용할 것이다. 3세 부터 7세까지의 한국어만을 배우고 언어 습득 능력에 이상이 없는 125명의 아동을 표본 추출하여 나이에 따라 한 그룹에 25명씩 다섯그룹으로 나누어 표준화된 진실-평가 언어 판단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응용언어학 분야의 공동연구의 일부분으로 대우재단의 학술연구지원을 받아 1992년 7월부터 1993년 6월까지 시행된다.